

# 최고교육을 넘어서 행복 교육을 향하여

##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한국의 교육 개선 노력 -

구 난 희(한국학중앙연구원)

### 1. 한국사회의 성장과 교육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두자릿수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2만7천불을 넘어섰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결정하고 2010년부터 DAC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도약하였다.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군사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던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또한 세계는 이러한 주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한국의 교육성취 그리고 한국인의 교육열을 들고 있다. 1996년 OECD 사무총장이었던 도널드 존스톤(Donald Johnston)은 한강의 기적은 다름 아닌 한국인의 '교육 수준의 산출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월 OECD는 11개 영역에 걸친 국가 웰빙 지표(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였는데 교육부문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38개국 중 6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도 교육이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60년대에 초등교육, 70년대 말에 중학교 교육, 9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2000년대에는 고등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장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녀 모두 80%를 웃돌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대 간 교육수준 향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국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 수준에 있어서도, 2000년 첫 번째 PISA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PISA 2012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PISA의 창조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인들 또한 이러한 평판에 동감하며 교육성취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부존자원이 적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적자본 때문이며 그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는 잘 갖춰진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의 교육 투자가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래도 가

장 중요한 동인은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이 아닌가 한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의 단상은 때때로 외국인에게 흥미롭고 사회 현상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그 좋은 일례가 대학 입학에 위해 치르는 수능능력시험 당일의 진풍경이다. 이 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며 승용차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혹여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이 교통체증으로 차질을 빚을까봐 출근시간을 피해주기 위한 배려이다. 그런 가운데도 종종 시간을 맞추지 못해 동동거리는 학생이 있으면 경찰기동대가 동원되어 해당 학생의 무사 시험장 입장을 지원한다. 게다가 영어 듣기 시험을 치르는 시각에는 수험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학부모나 수험생의 사후 항의를 피하기 위해?) 남한 전역에서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험생을 위한 특별 배려에 불편을 항의하는 시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수능 당일의 생활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수험생이 안정된 환경 속에 자신의 실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교육을 중시하고 공부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풍토는 이미 부모 세대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조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내려 온 사회적 전통이다.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직후 최빈국의 환경 속에서도, 한국 전쟁 중 포함과 총탄이 빗발치는 전화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교육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당장 먹일 끼니가 없으면 맹물이라도 마시게 하여 매일 아침 자녀들의 등교를 독려했다. 한국 전쟁 중의 천막교실, 부족한 교육시설 대비 많은 학생들로 인해 운영된 1일 3부제 수업 이런 것들은 모두 오랜 한국의 교육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역사적 단상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한국의 오랜 교육열 풍토는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 2. 한국 교육의 명과 암

하지만 과도한 교육열이 좋은 성과만을 낸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높은 성취 이면에 깔린 사회적 병폐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ISA의 결과가 보여주는 양면성은 그 좋은 예이다. 아래 표를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PISA의 학업성취도는 최상이나 해당 과목의 학습 흥미도는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시 조사대상국은 초등학교는 50개국, 중학교는 42개국이었다.)

학업성취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성취도	흥미도	성취도	흥미도
수학	2위	50위	1위	41위
과학	1위	48위	3위	26위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한국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얻기 위해 많은 학습량에 지쳐 있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급격하고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수포자라는 별칭이 바로 그것이다.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라는 말의 준말로 과도한 학습부담에 학습 흥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수학을 기피하는 학생을 말한다. 수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은 과도한 학습부담에 던져지고 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평균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가 6시간, 중학교가 7.5시간, 고등학교가 8시간 내외이지만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방과후 평균 4시간 내외의 사교육을 또 받는다. 한국 학생은 세계 최장학습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사교육은 공교육 체제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한 개인의 재능과 특성을 계발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교육은 남보다 조금이나마 앞서려는 경쟁심리에서 선택되고 있으며 대부분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선행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다보니 과도한 사교육은 오히려 정상적인 공교육을 교란할 정도이다. 게다가 점차 사교육 열풍은 낮은 학령으로 내려가고 있어 이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국제연합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한국의 지난친 조기교육과 입시교육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6년 OECD의 국가 웰빙 지표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8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지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의 과열 사교육 현상은 게임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성행하는 사교육은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심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 그리고 학부모의 면책심리가 결합되어 확산되고 이른바 과외게임이라는 지적은 흥미롭다. 남들이 하니(할 것이니까) 나도 해야하는 ‘죄수의 딜레마<sup>1)</sup>’가 아닐 수 없다<sup>2)</sup>.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정권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부어 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팽배는 여전히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이 낳은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도 한국 교육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각하게 된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교육이

---

1) 두 용의자를 각각 분리하여 심문하면 혹시 상대가 자신에게 죄를 미룰까 걱정하여 서로 상대의 죄를 과장한다는 이론이다. 서로 담합하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모두 최고형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모두 함께 자녀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무한경쟁 속의 불안 때문에 모두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다.

2)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2007, 34쪽.

사회적 생산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반성이다.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발표한 대학교육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체 61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이 사회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지표는 50위권에 머물렀다. 대학교육에 대한 문제점 역시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543계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의 업무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매우 유사하다고 응답한 것은 불과 2% 내외, 다소 미치지 못하다 혹은 크게 미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무려 60%에 달한다. 힘들게 진학한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육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해 진중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각성의 소리가 높아졌다.

### 3. 교육개혁의 추진

이러한 배경 위에 지금 한국은, 교육열이 낳은 성과를 계승하고 그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그간에 한국교육이 이룩한 최고의 성과를 넘어서서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③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의 주요 교육과제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확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된 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에 대해 세론하기로 한다.

#### 1)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으로 운영된다. 중학교 과정에서 시행되며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이 학기 동안에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필 고사가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종래의 강의 위주 수업이 아니라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에 대한 평가는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으로만 진행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터체험 등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주제선택 활동은 헌법, 경제·금융, 고전 토론, 체험 수학, STEAM 과학 등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체육 활동은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교육으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찾는다. 동아리 활동은 문예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 2) 창의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2015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 3) 일학습병행제 확산

일학습병행제는 대학진학에 집약된 학교 구조와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는 교육체제로서,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숙련기술자가 현장직무 심화실습을 담당한다.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배우고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다. '15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는 직업교육을 실시('15. 9교→'16. 60교, 2017년에는 203개교 신청중)하고, 고교-전문대 총 5년간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신설하여 현재 16개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회사에 학습근로자(학생) 1인당 20~40만 원을 지원하며 학생들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평가를 받아 정부 및 산업체가 인정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이 끝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취업)되면, 일반 직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무병제인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취업시 4대 사회보험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인정되는 혜택이 모두 주어진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sup>3)</sup> 기반 교육과정을

3)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의 활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현장 업무 능력의 검증이 가능하므로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및 재설계, 자격종목 설계 등에 활용가능하

적용하고, 전문대학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2017년까지 100개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3)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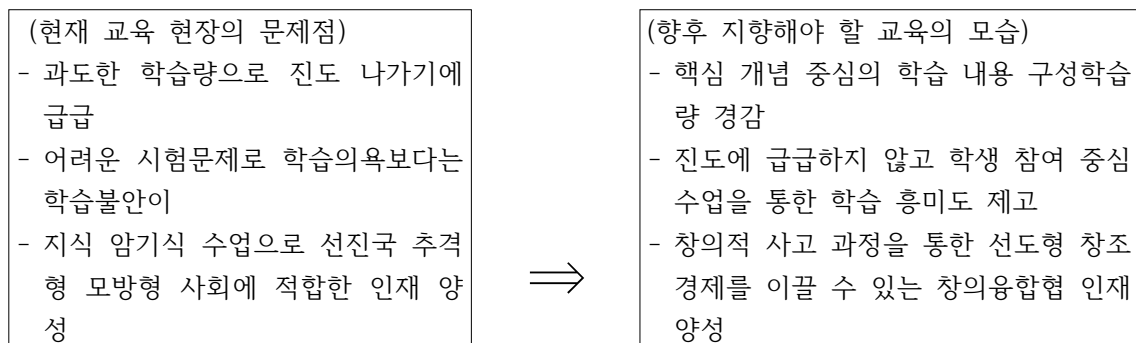
선취업 후진학 체제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고졸 취업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재학연한을 폐지하고 학기당 4주 집중이수 등을 가능하게 하여 직장을 가진 성인학습자들이 시간적 부담이나 학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별 관련 정부부처가 성장 동력 산업,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농생명자원 등 경쟁력있는 분야로 마이스터고를 확대 지정할 계획('16년까지 총 50교)이다. 또한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는 '취업 희망자 특성화고 진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일반고 진학 후 진로 변경 등으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도 확대하였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무협약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앞의 제도와 연계하여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등 학위와 연계되는 대학연계형의 경우, 해당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 4. 새 교육과정의 중점과 방향

2015년 12월 한국 교육부는 위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새 교육과정이 추구한 기본 취지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 다음으로 교육 훈련과정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채용, 승진, 배치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고 직무기술서로도 활용가능하다.

새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현상과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적 소양 함양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인으로 양성시키려는 취지이다. 궁극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학 교육을 이론 위주에서 감성과 소통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며, 연극교육도 활성화한다.

자연, 인간, 사회와 문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사회적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소양 교육도 중시한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세세한 내용요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융합·복합적 사고가 가능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과목을 통해 실험·탐구 중심 수업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감수성 및 정서를 함양하고 협동과 배려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강조되는 것이 연극 교육으로, 초·중·고 전반에 연극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배려하는 체험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초 5~6학년에서는 국어교과에 활동 중심의 연극 대단원을 개설하고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을 구성하며, 고등학교는 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에 「연극」과목을 신설하여 체험중심의 연극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 체육교육과 음악·미술 교육의 기회도 확대한다.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여 1학생 1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누구나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표현 및 감상·비평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계발하도록 한다.

### 2)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선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종래의 지식중심, 전달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을 재조직하고 탈산업화, 글로벌화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일찍이 OECD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2003년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sup>4)</sup>. 이 프로젝트 이후 국가들은 핵심역량에 주목하고 자국의 사회 현실에 맞는 다양한 핵심역량을 개발해 왔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궤를 같이 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먼저 총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4)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핵심역량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이용하기, 이질적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www.oecd.org/edu/statistics/deseco))

- . 자기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 공동체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교과 고유의 역량을 규명한 뒤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습득해야 하는지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습의 결과로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역량을 반영한 성취기준은 수행기준의 성격을 띠며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학생이 아는 것을 적용하고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역량 함양에서 중시하는 것은, 학습의 결과가 이후의 학습이나 삶에서 부딪치는 과제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 각 교과별로 특정 역량이 어떻게 학습되어야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연구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이 특정 맥락 속에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과 탐구 중심의 학습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 3) 학습량 적정화와 학생참여 중심 수업으로 즐거운 행복교육 추구

이는 학생들에게 부가되어 온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추구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이, 확장이 가능한 교과별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른바 적은 양을 깊이 있게(less and more) 가르침으로써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을 통해 사고력을 신장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수업에서는 토론, 협력학습, 탐구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열의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4)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선도하는 NCS 기반 직업교육 운영

NCS(National Comretnecy Standards, 국가표준능력)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지식, 기술, 태도)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을 말한다.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습-자격-일을 연계하여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주도의 NCS 학습 모듈 개발을 통해 특성화고, 전문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으로 개편하고 있다. 작년(2015)부터 전문대학에 NCS 기반 교육과정이 본격 운영됐으며, 올해부터는 특성화고에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수업연구회 지원, 학교 컨설팅 등을 추진 중이다.

### 5. 맺 는 말

그동안 한국 교육은 산업성장의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오면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면서 그 성과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관심도 높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더 이상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암기하는 인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핵심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학습 경험의 양보다는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정보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강조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배려와 공감의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 요구 속에서 한국이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었다. 즉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상황에서 학습한 다양한 요소들을 연계짓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보다는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중점을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겨 두고 있다. 전통 교과 체계의 틀의 변화에 대한 학계의 불편함,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의와 양상되는 경쟁체제, 핵심 지식의 선정을 둘러싼 논란(특히 보혁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역사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과별 핵심 역량의 상세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위한 합리적 평가 기준 설정 및 사회적 공감대 마련, NCS 기반 확립을 위한 교육계 내외의 협력체제 구축 등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

<표 1> 초등학교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표 2> 중학교

구 분		1~3학년
교 과  (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표 3> 일반고등학교

	교과 영역	교과(군)	공동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동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동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표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전문 교과 II	17개 교과(군) 등			86	28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표 5>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일본어 I, 프랑스어 I, 러시아어 I, 스페인어 I, 아랍어 I, 중국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일본어 II, 프랑스어 II, 러시아어 II, 스페인어 II, 아랍어 II, 중국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고등학교의 교과는 크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뉜다. 전문교과는 22개군별(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 미용관광, 음식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출판, 환경안전, 농림수산, 선박운항)로 해당 교과군마다 별도의 과목 체계를 갖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였다.